

#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항

### 전주시, 올해까지 75억원 투입 노후주택 정비·가로환경 개선 거점공간 구축·에너지 효율 향상·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추진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주시는 서완산동 용머리 여의주마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정비 ▲가로환경 개선 ▲거점공간 구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 25가구의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담장, 대문, 외부채색, 옥상방수 등 건물 외부환경을 정비하는 데 1000만 원을 지급(자부담 10%)해주며, 현재까지 5가구의 자봉계약 공사를 완료

했다.

시는 또 보도블록 교체, LED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계단데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노후화된 가로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여가생활을 지원할 거점공간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폐·공가와 잡목으로 방치돼 있던 구역을 정비해 생태숲공원을 건립한다.

생태숲공원은 탁 트인 주변을 한눈에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칭) 옛이야기도서관과 산책로, 단풍숲, 조경시설, 운동시설, 목공예체험장 등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여의주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을카페와 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머리 여의주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한 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지원 중에 있다. 총 37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한 내부 집수리 등을 추진했다.

시는 또 오는 12월까지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CCTV와 안심귀가 서비스가 탑재된 스마트 가로등 16개소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베이커리 교육과 핸드드립 커피 교육, 목공예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장은 "용머리 여의주마을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주민공동체 활동들이 시너지를 이뤄 추진돼 주거안정도가 높은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용머리 여의주마을에는 올해까지 국비 45억원 등 총 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김윤상 기자



##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식

### 전주시, 총 6팀 선정... 최우수상 CAN WIN팀

자전거도로를 새로 낼 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선정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최우수 작품으로 뽑혔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청에서 '2021년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최우수상을 차지한 CAN WIN팀(최재혁 외 3명) 등 수상자들에게 상을 줬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디지털 뉴딜을 이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영상 발표자료 접수 등을 거쳐 최종 심사대상 45건을 선별한 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CAN WIN팀은 자전거도로 위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관광지,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을 위한 최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도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유기동물 데이터 분석을 통해 QR코드와 연계한 유기동물 임시 홈페이지를 구현한 정삼태도팀(한소희 외 1명)과 유아 및 노인 인구수, 저상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병원·마트·공원 등을 분석해 저상버스 우선 설치 노선을 도출한 규주스팀(박소미 외 2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생활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 보급 최적 위치를 제시한 전주어관팀(백가연 외 1명)과 관광용 1000번 버스 노선을 고려해 공공주차장 입지를 선정한 포레스트팀(김민희 외 3명), 인구와 버스 이용량을 통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추가 설치장소를 결정해 비주얼라이징(Visualizing)팀(김영근 외 2명)이 받았다.

수상팀에는 전주시청과 함께 최우수상 팀에 200만 원, 우수상 팀에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함께 나누며 아동인권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조차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김광혁 전주시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황지영 전주시 인권담당관실 옹호관을 강사로 초빙해 각각 '판례에 기초한 아동학대의 이해'와 '아동인권, 마음과 귀를 기울이면 보이는 것들'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20명 이내의 소규모 토론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실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아동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자활사업단 발굴·저변 확대 성과

### 올 상반기 자활사업 매출 39억8800만원 달성

전주시와 지역 내 자활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자활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을 도울 자활복합공간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어서 자활사업의 성장 및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다양한 신규 자활사업단을 발굴·운영하고 자활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올 상반기 자활사업 매출 39억 8800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여 개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또 우렁각시(도시락 제조 및 공급), 재활용(재활용 수거운반), 행복바이크(자전거 대여 및 수리) 등 다수의 신규 사업

단을 발굴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그 결과, 전주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자활사업단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증가한 4억8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입푸드와 한마을복합영농, 우렁각시, 번개채차, 보드레기저귀 등 18곳의 자활사업단이 ▲식품 제조가공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 ▲어르신 돌봄 도시락 공급 ▲친환경채차 ▲전기저귀 렌탈 ▲수제공예품 생산 ▲간병 등의 사업으로 거둔 성과다. 여기에 필건축인테리어, (유)미소택배, 전주세탁나라 등 자활사업단에서 기업으로 승격한 자활기업들도 올 상반기에 8억 8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냈다.

또 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도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6%가 증가한 3억4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주푸드, 행복바이크, 스마일 청소, 매강유통 등 자활사업단 12곳은 ▲도시혁신크터 내 식당 운영 ▲자전거 수리 및 대여 ▲재활용품 수거운반 ▲공공기관 청소 ▲공공기관 내 카페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했다. 아울러 사람과 환경, (유)이리리월드, 맛나원, (유)농부맘 등 자활기업 7곳도 올 상반기 23억2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더불어 전주지역자활센터와 덕진지역자활센터는 전기저귀 렌탈, 친환경채차,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일회용품 보증제 시범사업 등 ESG 경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국비 18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완산구 중노송동 253-75번지(구 노송공원)에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은 열악한 자활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시설로, 자활사업단 한입푸드와 자활기업 농부맘이 입주해 누룽지류, 양파링 등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장으로 활용된다.

한편 시는 전주지역자활센터 및 덕진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71개 자활사업단을 기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0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지역 내 자활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자활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 “오늘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함께해요”

### 전주시, 에너지의 날 맞아 온라인 토크콘서트·소등행사 진행

전주시가 제18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소등행사 등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20일 저녁 8시 30분부터 전라감영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에너지센터와 함께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을 주제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함운호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는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전주시민 엄다영(효천초등학교 교사) 씨가 패널로 참여한다. 콘서트에서는 전주시의 에너지 정책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등이 공유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동참해야 할 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토크콘서트를 마친 뒤 밤 9시부터는 5분간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 토크콘서트 진행 중인 전라감영을 비롯해 전주시 청사와 전북대학교, 주덕관리공단 전북지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전주 녹색아파트 등 30개 단지, 전북은행, 농협은행 등이 소등에 동참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가정폭력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